



민수기 연구의 최신 동향과 메시지

정중호 <<< 계명대학교 교수 / 구약학

영화의 첫 장면은 영화 전체의 분위기를 소개하며 핵심적인 메시지를 살짝 맛볼 수 있게 해 준다. 특히 첫 장면의 배경이 큰 역할을 한다. 민수기가 한 편의 영화라면 첫 장면의 배경은 당연히 모래 바람이 몰아치는 광야다. 만일 필자가 감독이라면, 구름기둥을 선두로 하여 길도 없는 광야를 행군하는 그들이 남긴 발자국을 첫 장면에 클로즈업시킬 것이다. 그리고 모래 바람에 덮여져 흔적까지 사라지는 발자국을 보여 주면서 첫 장면을 fade out(장면이 서서히 어두워짐) 시킬 것이다.

성경 가운데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 할 정도로 잘 읽히지 않는 책이 민수기다. 우선 제목 자체가 답답하다. 수학이라면 머리가 지끈 아픈데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는 민수기라니 ...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에는 ‘광야에서(브미드바르[בְּמִדְבָּר])’ 라는 제목이 사용되고 있다. 민수기의 내용이 광야에서 행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이기에 ‘광야에서’ 라는 제목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제 민수기라는 영화의 첫 장면의 배경과 타이틀을 결정했다.

1. 민수기의 위치와 구조

그런데 문제는 내용이다. 상당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산만하게 흩어져 있어서 어떻게 교통정리를 해야 할지 막막한 느낌이 든다. 마치 길도 없는 광야에서 우두커니 서 있는 모습이 되어 버린다. 이 문제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각자 다양한 주장을 제시하면서 민수기를 정리하려고 노력해 왔다.

민수기는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오경 혹은 육경의 한 부분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육경 안에서 민수기가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여러 학자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시내산 전승 단락(Sinai Pericope, 출 19:3-민 10:10)”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 단락과 그 이후 부분을 구분하면서 민수기의 구조를 파악하려고 하였다.¹⁾ 그 결과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민수기의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기가 어려웠다.

민수기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는 데 크게 공헌한 학자는 버클리 대학의 교수였던 밀그롬(J. Milgrom)이다. 그는 육경의 구조를 땅 약속과 성취라는 패러다임을 주축으로 하여 중앙집중적 구조(introverted structure)로 정교하게 짜인 구조라고 밝혔다.²⁾ 1993년 메리 더글라스(Mary Douglas)는 창세기에 나타나는 약속과 저주가 민수기에 대칭적으로 실현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³⁾ 그러나 대칭이라고 말하기에는 무리한 점들이 있다. 2003년 이원우는 땅의 약속과 성취라는 큰 틀을 활용하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려다 실패한 중요한 사건인 가데스바네아 사건(민 13-14장)을 분

1) Rolf P. Knierim and G. W. Coats, *Numbers* (FOTL; Grand Rapids: Wm. B. Eerdmann, 2005), 9-17.

2) J. Milgrom, *Numbers* (JPS; Philadelphia/New York: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0), 18.

3) Mary Douglas, *In the Wilderness: The Doctrine of Defilement in the Book of Numbers* (Sheffield: JSOT, 1993), 98.

기점으로 활용하여 민수기의 위치를 설정하였다. 이 구조의 장점은 민수기가 약속의 땅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 책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⁴⁾

그러면 이제 이러한 학문적 주장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직접 민수기 안에서 단서를 찾아 민수기의 구조를 밝혀 보자.

민수기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살펴야 할 것은 날짜와 지역 간의 이동 사항이다. 시내산에서 머무르면서 광야 행군을 준비하는 모습이 먼저 나타나고(1:1-10:10), 출애굽 후 2년 2월 20일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가데스바네아까지 행군하였다. 호르산을 가데스바네아 인접 지역으로 간주한다면 여기서 38년 간 머무른 것으로 보인다(10:11-20:29).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는데 그 날짜는 이집트를 탈출한 후 40년째 5월 1일이었으며 나이는 123세였다(33:38-39). 시내산에서 출발한 때가 출애굽 후 2년 2월 20일이었으니 시내산에서 출발한 후 38년 2개월 후 아론이 죽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데스바네아 부근 호르에서 출발하여 요단 동편 땅을 거쳐 모압 평지에 이르러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이 나타난다(21:1-36:13).

민수기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두 번째 단서는 세대 차이이다. 출애굽 세대와 자녀 세대의 광야 세대가 구별된다. 우선 주목할 만한 것은 인구 조사인데 출애굽 세대는 1장에, 그리고 자녀 세대는 26장에 나타난다. 밀그롬(J. Milgrom)과 프린스턴 신학대학원 교수인 올슨(Dennis T. Olson)이 인구 조사를 기점으로 1-25장 부분을 출애굽 세대의 부분, 그리고 26장부터를 자녀 세대의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이것에는 문제점이 있다.⁵⁾ 주의할 점은 자녀 세대가 주도적으로 활동한 것은 이미 21장부터 나타난다

4) Lee Won Woo, *Punishment and Forgiveness in Israel's Migratory Campaign*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2003), 290.

5) Milgrom, *Numbers*, vii-viii; Dennis T. Olson, 차중순 역, 『민수기』(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2000), 27.

는 점이다. 출애굽 후 시내산을 거쳐 가데스바네아 부근에서 머문 기간을 통산하면 40년이기 때문에, 출애굽 세대는 이미 노인이 되었고 아론을 비롯하여 늙어서 죽은 사람들이 많았다. 따라서 21장부터 전투하면서 행군하는 사람들은 자녀 세대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레빈(Baruch A. Levine)도 민수기 주석을 크게 제1권(1-20장)과 제2권(21-36장)으로 나누어 해석하였다.⁶⁾

마지막으로 살펴 볼 단서는 육경 전체 속에서의 흐름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데 그 땅에 정착한 것은 여호수아에서 비로소 나타난다. 그 중간에 일어난 중요한 분기점은 가데스바네아 사건이다. 가데스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믿음이 부족하여 실패하고 다시 요단 동편을 우회하여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따라서 가데스바네아 사건을 분기점으로 보아 약속의 땅을 향한 육경의 구조와 민수기의 위치를 파악한다면 다음과 같은 구조를 제시할 수 있다.

(원역사를 포함한 땅 약속, 창 1-50)

A. 약속의 땅 정복 실패	출 1-민 14
1. 준비 과정	출 1-민 10:11
2. 약속의 땅 정복 실패	민 10:11-14:45
B. 약속의 땅 정복 성공	민 15-수 12
1. 준비 과정	민 15-신 34
2. 약속의 땅 정복 성공	수 1-12
(땅 분배, 수 13-24)	

이러한 구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민수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6) B. A. Levine, *Numbers 1-20* (AB 4; New York/London: Doubleday, 1993); *Numbers 21-36* (AB 4A; New York/London: Doubleday, 2000).

죽음의 땅 광야를 향해 용감하게 출발하였고, 비록 불평과 실패와 반역의 사건도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점이다.

그리고 가테스바네아를 기점으로 민수기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본다면 세대 간의 차이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즉 출애굽 세대의 이야기는 1-20장까지, 그리고 자녀 세대의 이야기는 21-36장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께 반역한 출애굽 세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형벌을 내렸다. 다만 갈렙과 여호수아만 제외시켰다. 그런데 놀랍게도 광야에서 자란 자녀 세대는 믿음도 강했고 성공적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을 누가 교육시켰는가? 바로 출애굽 세대인 부모 세대였다. 비록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을 받았지만, 자녀 세대만큼은 성공적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보내기 위해 열악한 환경인 광야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신앙으로 교육시켰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자녀 교육을 통해 오히려 희망을 찾은 그들의 모습을 통해, 광야 같은 삶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날 우리도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큰 틀 속에 세부적으로 민수기의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⁷⁾

제1권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 약속의 땅 정복 준비와 실패 (1:1-14:45)

제1부 출애굽 세대의 시내산 준비 (1:1-10:10)

7) 민수기의 자세한 구조와 내용에 대해서는 필자의 민수기 해석서를 참조바란다. 정중호, 『새로운 해석과 설교를 위한 민수기 I』(서울: 프리칭 아카데미, 2008); 『새로운 해석과 설교를 위한 민수기 II』(서울: 프리칭 아카데미, 2008).

제1장 진영 조직과 임무 분담 (1:1-4:49)

제2장 진영의 정결 및 행군 준비 (5:1-10:10)

제2부 출애굽 세대의 정복 실패

-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 (10:11-14:45)

제2권 광야에서 꿈꾸는 새로운 희망

- 약속의 땅 정복을 위한 새로운 준비 (15:1-36:13)

제1부 출애굽 세대의 새로운 준비와 죽음

- 가데스와 호르에서 (15:1-20:29)

제2부 새로운 세대의 정복 준비

- 호르에서 모압 평지까지 (21:1-36:13)

제1장 새로운 세대의 승리와 반역 (21:1-25:18)

제2장 새로운 세대를 향한 야훼의 말씀 (26:1-36:13)

2. 민수기의 신학과 메시지

1) 민수기에는 법(규정)과 이야기가 교대로 나타나지만 다양한 이야기
가 중심이 되어 있다. 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즉 민수기에는 하
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광야밖에 보이지 않지만 용감하게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들어있다. 마치 현
장 보고서 같다. 아니 전투상황을 일일이 표시해 주는 전투 상황판 같다.
전투 상황판의 생명은 사실을 정확하게 표시해 주는 것이다. 민수기는 정
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들의 상황을 알려 주면서, 오
늘날 우리에게도 상황판 작성을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살아남을 수 있
는 길, 하나님이 주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를 요청하고
있다.

2) 우리는 민수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불평도 많이 하고 반역도 많이 한 나쁜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자. 불평이 아니라 아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절망 속에 헤매었을지도 모른다. 끝도 없는 죽음의 땅 광야 밖에 보이지 않는데 전투를 하면서 그곳을 건너가라니! 아이들의 손목을 잡고 노인들과 아내와 함께 양식도 없고 물도 없는 그 거친 곳을 걸어가라니!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광야를 걸어간 것이다. 그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용사였다.

3) 광야는 하나님의 학교였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광야에서 실제 훈련을 하였다. 광야를 걸어가면서, 그리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혔다. 광야에서 훈련받은 자녀 세대가 성공적으로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는 것을 보면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로부터 신앙 교육을 잘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모두를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교육이, 비록 부모 세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고 징벌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일은 슬픈 일이지만, 그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킨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달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자녀 세대를 통해 좋은 열매를 맺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다니는 하나님의 학교에는 우리가 모범적이고 신실한 학생으로, 열심히 배우며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는 학생으로 알려져 있을까?

4) 특히 자녀 세대의 경우 새로운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창의적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슬로브핫 딸들의 유산 상속 문제(27, 36장)와 요단 동편 땅에 정착하려했던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의 요구를 무시하지 않고 대화를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는 협상력과

창의력을 보여 주었다(32장).⁸⁾ 오늘날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걸어가고 있는가?

5)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발걸음을 옮기는 신앙공동체를 어떻게 조직하며 어떻게 움직여 나아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회막을 중심으로 거주하기도 하고 행군하기도 한다. 그리고 지도자를 세워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조직하였다. “야훼의 성막을 맡은 자”인 레위인과 제사장이 회막의 일을 담당하고 하나님과 백성의 만남을 중재하도록 하였다.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하여 제사를 집전하고 백성을 상담하며(5:11-31) 백성을 축복한다(6:22-27).⁹⁾ 제사장은 백성이 머물 때나 이동할 때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또한 장로들과 족장들로 구성된 지도자들을 세워 백성을 인도하도록 하였다.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조직을 재편하는 일,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일, 지도자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일이 중요하다.

6) 지도자들이 바로 서는 일, 지도자 자신들이 자신의 몫을 충실히 감당하는 일이 중요하다. 모세는 목숨을 걸고 백성들을 위해 중재하였고, 비록 잘못을 저질러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다음 세대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세웠으며 끝까지 백성들을 위해 모든 정성을 기울였다. 제사장들은 기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백성을 살릴 수 있는 일이라면 파격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드는 모습도 보였다(16:41-49).

7) 민수기는 평신도를 깨우는 책이다. 모세는 “야훼께서 그의 영을 그들에게 주사 야훼의 백성 모두가 예언자 되기를 원하노라(11:29)”라는 소

8) 정중호, “요단 동편 땅에 대한 민수기의 갈등과 해결방안,” 『한국신학논총』 7 (2008), 7-24.

9) 정중호, “회막전승의 역동성과 법례,” 『구약논단』 18 (2005), 14-29.

원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또한 제사장은 평신도들의 옷자락에 ‘치치트’ (옷단 귀의 술)를 달도록 하며 거룩한 제사장 신분을 표시하는 ‘청색 끈’을 더하도록 하였다. 평신도가 거룩한 신분, 즉 “하나님 앞에서 거룩” (15:40)한 사람이 되도록 허락한 것이다. 또한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된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붉은 암소의 재”는 정화 제사(속죄제)인데 정결한 평신도가 그 재를 활용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19장). 제사장만 담당하는 정화 제사(속죄제)를 평신도에게 허락하여 신속하고 쉽게 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¹⁰⁾

8) 민수기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실제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하나님은 회막에 계시며 백성들과 함께 이동하신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백성들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백성들과 대화를 하시는데 그들의 불평도 듣고 진노하시기도 하시고 그들의 기도도 들으시며 그들을 축복하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성공적으로 그 땅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느낄 수 있다.

:: 정중호 경북대학교(B.Ed.)와 장로회신학대학교(M.Div.)를 나와 미국 콜롬비아신학교(Th.M.)와 에모리대학교(Ph.D.)에서 공부했다. 지금은 계명대학교 구약학 교수로 있다.

10) 정중호, “민수기 19장의 붉은 암소 의식,” 『깊은 말씀 맑은 가르침: 청훈 강사문 교수 정년퇴임 논문집』 (서울: 땅에쓰신글씨, 2007), 102-22.